

발간 등록 번호

11-B260003-000519-14

KOICA

제46호 | 2018. 12월

개발과 이슈

UN 고위급정치포럼(HLPF)의 SDGs 이행과정 검토 III

I. 2018 UN HLPF 개요

II. 주요 SDGs 이행과정 검토

III. 자발적 국별 검토 (2018 VNR)

IV. 2018 UN HLPF 의의 및 향후 일정

UN ECOSOC 주관 하에 2018년 지속가능개발에 대한 고위급정치포럼(HLPF)이 뉴욕의 UN본부에서 2018년 7월 9일부터 18일까지 개최되었다. SDGs 이행 과정을 검토하고 후속 조치를 마련하는 자리로, 2018년 포럼은 지속가능하고 복원력 있는 사회로의 변혁(Transformation towards Sustainable and Resilient Societies)을 주제로 SDG 6, 7, 11, 12, 15, 17을 중점적으로 논의하였다. 공식 프로그램 외에도 다양한 부대 행사와 회의가 개최되었으며, 특히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사회 구축을 위해 취약계층, 여성, 인권 등을 강조하였다.

전반적인 의견은 SDGs를 내재화하여 국가 발전 계획 및 전략으로 널리 채택 및 실행하는 등 많은 분야에서의 진전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제사회의 관련 협약 등의 논의와 방향성 일치를 지향함으로 보다 효과적인 목표 달성을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빈·내륙 개발도상국 및 군소 도서국가들은 여전히 목표 이행 및 달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중소득 국가들에서도 더 나은 삶을 보장하는 것에 많은 사람들이 소외되고 있는 문제를 직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발적국별검토(VNR)에서는 참여국 모두 대체적으로 최고 수준의 정부 및 정치적 지원 하에 목표 달성을 위한 다양한 접근을 시도하고 있으나, 아직은 국가별로 상이한 이행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사회 구현을 위해서는 많은 노력과 협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HLPF의 논의를 중심으로 국제사회의 SDGs 이행 동향을 파악하고 그 방향성 및 의미에 대해 생각해보고자 한다.

ODA 연구·정보센터 윤유리

1. 2018 UN HLPF 개요

2030 Agenda 이행 세 번째 해를 맞이하며 뉴욕 UN 본부에서 개최된 2018 HLPF(High-Level Political Forum: 고위급정치포럼)는 2016 및 2017 HLPF에 이어 SDGs 이행 과정에서의 도전과제를 찾고 해결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2016년 시작된 HLPF의 SDGs 이행현황 점검은 2017년부터 3개년에 나누어 테마별로 목표 이행현황을 점검하고 있으며, 2019년에는 세 번째 테마와 함께 UN총회도 개최될 예정이다.

2018 UN HLPF는 ‘지속가능하고 복원력 있는 사회로의 변혁(Transformation towards Sustainable and Resilient Societies)’이라는 주제 하에 7월 9일- 18일까지 UN ECOSOC 의장(2017.8-2018.7 Marie Chatardová 주UN대표부 체코대사) 주관으로 25개의 공식 회의, 260여개의 부대 행사 및 기타 스페셜 행사 등을 개최하였으며, 2,200명 이상이 다녀간 것으로 집계되었다.

[그림 1] 2018 HLPF 논의 주제 및 목표



출처: The Economist

‘빈곤 퇴치와 번영’이라는 주제 하에 7개 목표(SDG 1, 2, 3, 5, 9, 14, 17)를 다루었던 2017년 HLPF에 이어, 2018년에는 SDG6(모두를 위한 깨끗한 물과 위생시설 접근성 보장), SDG7(모두를 위한 적정 가격의 신뢰할 수 있고 지속 가능하며 현대적인 에너지에의 접근 보장), SDG11(포용적이고 안전하며 회복력 있는 지속가능 도시 조성), SDG12(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 SDG15(지속가능한 산림 관리, 사막화와 토지 파괴 방지 및 복원, 생물다양성 감소 방지), 그리고 SDG17(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이행수단과 글로벌파트너십 강화) 등 총 6개 목표를 검토하였다. 기술, 과학, 에너지, 기후 관련 목표들로 구성되었던 만큼 상당한 전문성을 요구하는 바, 2030년까지 목표 달성 및 누구도 소외되지 않게(leave no one behind¹⁾)하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노력이 필요함을 다시금 강조하는 자리였다.

한편, 한국은 시민사회를 주축으로 외교부, 한국국제협력단 등과의 협력 하에 ‘지속가능한 평화를 위한 ODA 역할(Role of ODA for SDGs and Sustaining Peace)’라는 주제로 부대행사를 진행하였다. 한반도 남북 관계가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평화가 성공적으로 정착한다면 국제사회에 희망과 평화 논의에 기여하는 바가 매우 클 것으로, 평화·인권 등의 주제는 SDGs 달성을 위한 수단인 만큼 가시적인 성과를 위한 연계성의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2. 주요 SDGs 이행 과정 검토

2018년은 ‘지속가능하고 복원력 있는 사회로의 변혁’이라는 주제 하에 복원력(resilience), 인권(human rights), 평화(peace)가 특히 강조되는 자리였다. 전반적으로 SDGs를 내재화하여 국가 발전 계획 및 전략으로 널리 채택 및 실행하는 등 많은 분야에서 진전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원활한 실행을 위해 2030어젠다와 파리협약, 센다이 재해위험저감 강령, 아디스아바바 행동의제 등 타 국제 논의와의 방향성이 일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한편 최빈·내륙 개발도상국 및 군소도서국가들은 여전히 목표 이행 및 달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중소득 국가들에서도 더 나은 삶을 보장하는 것에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소외되고 있는 문제를 직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 SDGs에서 핵심이 되는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Leave no one behind)’은 빈곤과 불평등이 경제발전 수준과는 무관하게 모든 국가에서 제기 되는 문제임을 인지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하는데 있어 모두가 사람답게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공동의 협력이 필요함을 강조함. As we embark on this great collective journey, we pledge that no one will be left behind. Recognizing that the dignity of the human person is fundamental, we wish to see the Goals and targets met for all nations and peoples and for all segments of society. And we will endeavour to reach the furthest behind first. – UN General Assembly (2015) para.4

특히 2018 HLPF에서는 여성 및 인권이 다소 강조되었는데, 이는 다소 소외되고 있는 취약계층 및 여성이 상대적으로 물과 위생시설, 에너지 등의 접근성이 떨어지며, 난개발에 따른 급격한 삼림 감소로 기후변화에 따른 재해 위험성에 더욱 크게 노출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악순환은 소외된 이들을 더욱 소외되게 만들며 인간이 기본적으로 누려야할 권리로부터도 멀어지게 되는 현상을 초래하는 만큼, 단순히 목표별 이행정도를 살피는 것 외에도 인권 및 여성 등의 크로스커팅 이슈들도 함께 살펴보아야 한다는 취지가 돋보였다.

목표이행 현황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SDG6 관련하여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안전한 식수 접근성 및 기본적인 위생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목표 6.2를 보면 최빈개도국 인구 중 약 27% 정도만이 최소한의 위생설비를 갖추었으며, 8억9천여명 정도가 여전히 정화장치가 없는 상황에 처해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후변화에 따라 향후 물 부족 현상을 겪을 가능성이 높아짐을 언급하며, 생태계 보존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수자원 관리의 중요성에 대해 다시금 강조하였다. 더욱이 취약계층은 물과 위생 접근성에서 쉽게 소외되는 만큼, 정책적 보호 장치가 필요하며, 인권보호 차원에서 수자원 접근성 권리 또한 보호받아 마땅한 것이라 언급하였다. 한편 2016년 물 분야의 ODA는 90억 달러에 달하지만, 약정(commitment) 기준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어 향후 원조실시액(disbursement) 역시 감소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실정이다. 2017년 설문조사에 의하면 80% 이상 국가에서 WASH 목표 달성을 위한 자원 부족을 보고한 바 있다²⁾.

에너지를 다루고 있는 SDG7은 2030년까지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로 하는 가운데, 기술 발전에 따른 비용절감 등으로 달성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내다보고 있다. 다만, 에너지는 기후변화 및 탈탄소(de-carbonization) 외에도 빈곤퇴치, 보건, 경제성장, 일자리 및 이행수단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목표로 기술지원 및 투자가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하는 분야이다. 전력 접근성은 2000년 78%에서 2016년 87%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지만 여전히 10억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전력공급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최빈개도국의 경우 그 비율이 44.8%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조리용 연료의 경우 보건 및 건강과도 직결되는 요인으로 약 41%정도의 인구가 깨끗한 조리용 연료와 기술이 없으며, 22억 명 정도는 나무땔감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재생에너지의 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는 있지만 운송, 냉난방 설비에서의 개선은 여전히 필요로 하며, 에너지 효율성도 서서히 개선되고 있지만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더욱 많은 노력을 필요로 하고 있다.

2) 세부목표 6.a: UN ECOSOC (2018e) p.9

SDG11은 주거 지역 및 환경에 큰 비중을 두고 있으며, 오늘날 도시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도 하다. 세부목표 11.1과 지표 11.1.1을 보면 2000년부터 2014년까지 빈민가 거주자의 수는 8억여명에서 8천만명 정도가 더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도심 거주자의 91%는 깨끗하지 못한 공기를 마시고 있으며, 2016년 한해에만 420만명 정도가 대기오염으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연재해로 인한 주택 피해는 1990년부터 2013년 사이에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증가를 보였다. 또한 5천만명 정도가 매년 도로에서 사고를 당하고, 130만명 정도가 사망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대부분의 이러한 사고는 중저소득국에서 발생하고 있다. 인권으로서의 적절한 주거가 확립되고, 나아가 양질의 일자리와 서비스 접근성을 함께 제공할 수 있을 때 도시의 포괄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근간이 된다. 도시는 그 자체가 매우 복합적인 생태계인 만큼, 제 기능을 하며 SDGs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시각에서의 접근과 기술 및 데이터 등에 많은 투자가 필요하다.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SDG12)³⁾ 관련하여 가장 큰 이슈 중 하나는 경제성장에서 자원 활용을 분리시키는 것으로, 이를 위해서는 적합한 환경, 사회적 물리적 인프라와 시장을 창출하는 정책이 반드시 필요하며, 글로벌 가치사슬 내 비즈니스 관행의 심화된 변화도 뒤따라야 할 것이다⁴⁾. 더욱이 소비와 생산은 국경이 존재하지 않기에 SDG12의 이행은 공급사슬 전체에서, 글로벌 및 지역 단위는 물론 국가 및 도시 단위에서도 동시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얹혀 있는 분야인 만큼, 정책 간 연계성 나아가 비정부기관들과의 협력 또한 매우 중요하다⁵⁾. 현재 SDG 지표 12.1.1 기준으로 71개국 및 EU가 SCP 주류화를 이룬 것으로 보고하였다. 여전히 개선사항이나 새로이 등장하는 이슈들은 있으나, 검토대상 목표 중 가장 진척이 이루어진 목표로 나타났다.

SDG15는 토지, 생태계, 생물 다양성 등을 광범위하게 다루고 있는 야심적인 목표로 이행현황도 다소 복합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삼림 보호를 위한 장기적인 계획 수립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삼림의 감소세도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연간 330만 헥타르 정도의 삼림이 손실되고 있으며, 토지 생산성 역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생물다양성을 위한 양자원조는 2015년 대비 2016년에는 21% 정도 감소하며 70억 달

3)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Sustainable Consumption and Production: SCP)은 “기본적인 요구에 부응하고 더 나은 삶의 질을 제공하면서 미래 세대의 수요가 위태롭지 않게 천연 자원 및 독성 물질의 사용을 최소화하고 폐기물과 오염물질의 배출을 방지하는 것 (the use of services and related products, which respond to basic needs and bring a better quality of life while minimizing the use of natural resources and toxic materials as well as the emissions of waste and pollutants over the life cycle of the service or product so as not to jeopardize the needs of further generations)이라 1994년 오슬로 심포지엄에서 정의한 바 있음

4) UN ECOSOC (2018) p.12

5) 협력 대상으로 여성, 소수민족, 노인, 장애인, 토착민도 포함되어야 할 것을 언급 – UN ECOSOC (2018) p.13

러수준에 그쳤다. 1993년부터 멸종위기 레드리스트 지수(Red Line Index)는 0.82에서 0.74로 감소하고 있으며, 주요 원인으로는 서식지 손실에 의한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국가 계획에 의해 산림이 관리되고 있다고는 하나, 산림 차별의 주요 요인 중 하나는 산림을 농업용지로의 전용으로, 특히나 빈곤층이 많은 농촌지역에서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다. SDG15는 생물다양성협약(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과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아이치 타겟(Aichi Biodiversity Target)⁶⁾과 연관이 깊은 만큼, SDG15 이행강화를 위해 토지-식량-물-에너지-기후 넥서스, 도시-시골 간의 연계성 등을 거듭 강조하며 국내 정책 및 전략 간의 통합적인 접근이 시급함을 언급하였다.

매년 검토 대상인 SDG17은 글로벌 파트너십을 강조하며 이행수단 강화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다. SDGs 이행을 위해서는 파트너십과 협력이 강조되는 만큼 나머지 16개 목표와 연관성이 매우 높다고 볼 수 있다. SDG17은 2017년에도 상당한 진전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평가 받은 데 이어 광범위한 경제 성장과 투자 및 금융 시장의 지원을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진전을 보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편, 2017년 OECD 회원국의 순ODA는 총 1,466억 달러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2016년 대비 0.6% 감소한 수치이다. GNI 대비 0.7%를 달성한 국가들도 5개국⁷⁾에 머물며, 평균 0.31%에 그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외국인직접투자에서도 나타났는데, 2016년 대비 2017년에는 약 11% 감소하였으며, 투자 범위도 특정 국가 및 산업에 집중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민 및 이주 정책이 강화됨에 따라 국제 이주자의 송금 또한 2015년 5조 5500억 달러에서 2016년 5조 3800억 달러로 감소하였다. 한편, 2011년 이후 세계 무역 침체가 지속되는 가운데 개발도상국과 최빈개도국의 세계 시장 점유율 확대 역시 중단된 상태이며, 개발도상국의 수출 비중은 2014년 45.4%에서 2016년 44.2%로, 최빈개도국은 2013년 1.1%에서 2016년 0.9%로 연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글로벌 파트너십에 있어서는 정부의 개발전략 및 프레임워크에 맞추어 지원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환경과 정책 일관성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또한 경제성장 촉진을 위해 신기술을 적극 활용하고 있으나, 취약계층 보호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함을 강조하였다.

2018 HLPF에서 다른 목표들은 대체적으로 양성평등 및 인권을 지속가능한 개발의 전제적 조건으로 비중 있게 다루었다. 이 외에 데이터에 대한 중요성도 함께 언급하였는데, 일부 목표에 대해서는 데이터 부족 또는 방법론 개발 등으로 지표 측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6) 제10회 생물다양성협약 총회(2010년 나고야)에서 2020년까지 훼손된 생태계의 15% 이상을 복원하는 등 생물 다양성 유지를 위해 국제사회가 이행하기로 한 목표

7) 덴마크, 룩셈부르크, 노르웨이, 스웨덴, 영국

SDGs의 상호 연결되고 불가분의 특성을 감안할 때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더욱 다양한 참여자가 필요하며, 정부, 지역사회, 시민사회, 연구 등의 파트너십이 어느 때보다도 강조되었다.

3. 자발적 국별 검토 (2018 VNR)

2018 자발적 국별 검토(VNR)에는 총 46개국이 참여하였으며, 유럽 15개국, 미주 9개국, 아시아 13개국, 아프리카 9개국으로 구성되었다. VNR은 각국의 SDGs 이행 과정을 공유하는 자리로, 정부부처 외에도 시민사회 등의 참여가 함께 이루어짐으로 다양한 시각에서 그 과정을 검토할 수 있다. 이는 자국의 이행현황을 스스로 검토하고 각국의 다양한 경험을 통해 보다 효과적인 결과를 창출하기 위함이며, 2016년부터 총 102개국 111개 검토가 이루어졌다⁸⁾.

[표 1] 2018년 자발적 국별 검토(VNR) 참여국 - 46개국

알바니아	안도라	아르메니아	호주	바하마
바레인	베닌	부탄	카보베르데	캐나다
콜롬비아	도미니카공화국	에콰도르	이집트	그리스
기니	헝가리	아일랜드	자메이카	키리바시
라오스	라트비아	레바논	리투아니아	말리
몰타	멕시코	나미비아	니제르	파라과이
폴란드	카타르	루마니아	사우디아라비아	세네갈
싱가포르	슬로바키아	스페인	스리랑카	팔레스타인
수단	스위스	토고	아랍에미리트	우루과이
베트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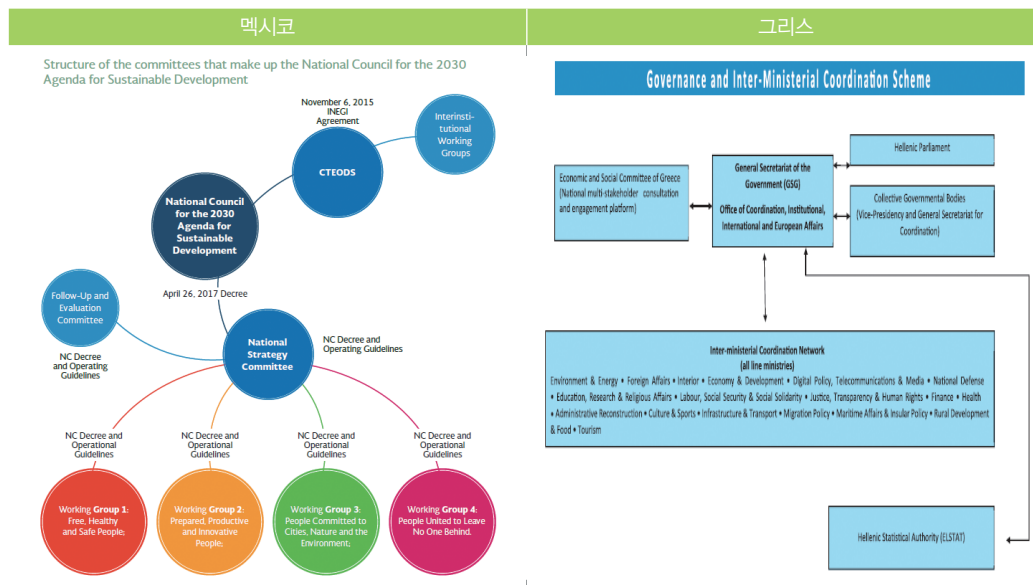
* 보다 자세한 주요 VNR 내용은 부록 참고

8) 2018년에는 콜롬비아, 이집트, 멕시코가 두 번째 VNR 제출, 토고는 세 번째 VNR 제출함. 우리나라는 2016년에 제출한 바 있음

보다 효과적인 SDGs 이행을 위해 각국은 2030 의제를 정책 틀에 통합하는 과정 및 조취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는 자리로, 대체적으로 최고 수준의 정부 및 정치적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고하였다. 부처 간 위원회 등을 통해 관련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나아가 정부 외의 이해관계자들까지도 포용하고 있음을 언급하였다. 다수의 국가에서 기술 기관이 상위 기관 및 위원회를 지원하거나, 국가 통계 기관이 조정 기관의 구성원으로 참여하거나 기술지원을 제공하는 등 다양한 협력 사례를 찾아볼 수 있었으며, 일부 국가들은 주인의식 확산을 위해 SDG 전담반을 설립하고, 부처 및 기관 간의 효과적인 조정을 보장하고 있다고 하였다.

SDGs 이행체계와 국내 전략과의 조화는 지속적인 노력을 필요로 한다. 많은 참여국들은 국가 전략과 계획의 조화는 모든 분야에서 실행되어야 하는 지속적인 과정이며, 기존의 정책과 프로그램을 각각의 SDG 목표로 매핑이 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SDGs 의제를 기존의 국가 개발전략에 내재화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정책의 단계적 통합의 필요성을 공감하였다.

[표 2] SDGs 이행을 위한 국내 전략으로의 내재화 현황



자료: 2018 VNR 멕시코, 그리스

VNR에 참여한 46개국의 경제 수준은 모두 상이하나, 빈곤퇴치(SDG1)에 대해서 다양한 접근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 국가에서는 오히려 빈곤이 증가하고 있음을 우려하고 있었는데, 특히 소외계층이 국가의 경제수준과 별개로 존재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할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Miroslav Lajčák (2017-2018년 유엔총회 의장)은 2018 HLPF에서 목표 달성을 위한 자원 부족에 대해 언급한 바 있다. 특히 최빈개도국(LDCs), 내륙개도국(LLDCs) 및 군소도서개발국(SIDS) 등, 다수의 국가들이 자원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이행수단 강화 및 글로벌 파트너십 활성화를 통한 방안을 모색 중에 있다. SDG17 이행은 국제적, 지역적 양자간, 남-남 또는 삼각협력 등의 다양한 형태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네트워크는 결국 목표 달성을 위한 경험을 공유하고 정부의 제도적 및 기술적 역량을 강화하며, 나아가 국제개발협력 전략을 조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다. 2018 VNR에서는 파라과이의 주변국을 대상으로 하는 남-남 기술협력 프로그램인 SIMORE Paraguay⁹⁾와 카보 베르데의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취약 계층을 위한 단일사회통합등록망(Single Social Registry)¹⁰⁾이 대표 협력 사례로 언급되었다.

한편, VNR은 SDGs 이행과정을 검토하기 위해 모든 국가가 유사한 프레임워크 안에서 검토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어 있다. 하지만 자발성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가이드라인에 따른 표준화는 상대적으로 미흡한 상태이다. VNR이 큰 틀에서는 가이드라인을 따라 작성되었다고는 하나, 실행과정보다는 계획을 언급하거나, 17개의 모든 목적의 이행현황보다는 해당 년도의 HLPF 주요 목표를 발표하는 등, 국가별로 상이한 검토 과정에 대한 발표가 이루어지고 있어, 이에 대한 비판도 일고 있다. 무엇보다도 국가별 비교분석이 어렵다는 평가도 이루어지고 있다. 현실적으로 SDGs 이행현황이 각기 다른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어 비교 차제는 어려울 수 있으나, 또 다른 한편으로는 각 국가별 상황에 맞게 내재화 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이며, 그래서 파트너십의 강조가 더욱 필요한 부분일 것이다.

9) 파라과이의 경험을 토대로 국제인권 권고의 후속 조치를 SDGs와 연결시키는 혁신적인 메커니즘(SIMORE Plus platform)의 안정적인 설치와 실행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함 - UN ECOSOC (2018g) p.59

10) ILO 및 WB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구현한 것으로 취약계층 데이터 수집이 가능함. 현재까지 19,000가구의 75,000명 정도가 등록되어 있음 - UN ECOSOC (2018g) p.60

4. 2018 UN HLPF 의의 및 향후 일정

2018 HLPF는 UN 총회 결의안 70/299 채택에 따라 SDGs 이행현황을 세부적으로 살펴본 세 번째 해로, 각 목표별 국제사회의 이행정도 및 문제점과 개선점에 대해 점검하는 자리였다. 전반적으로는 각국의 이행 수준은 상당한 진척을 나타내며 SDGs 달성을 위한 의지가 어느 때보다도 강해졌음을 보여주었으나, 동시에 SDGs 6, 7과 같이 아직 달성을 위해서는 많은 노력을 요하는 목표도 있음을 인지하였다. 무엇보다도 기후변화가 물, 에너지, 농업, 생물 다양성 및 해양자원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모든 국가에서 나타나고 있어 이를 완화하기 위한 노력이 절실함을 공감하였다. 또한 최빈국 및 군소도서개발국 등은 목표 달성에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어, 국제사회의 다양한 협력 및 파트너십이 요구되는 바이다.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사회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며, 정부와 관련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헌신과 협력이 필요함을 다시금 강조하였다.

2019년 HLPF는 7월 9일부터 19일까지 뉴욕 UN 본부에서 개최되며, ‘Empowering people and ensuring inclusiveness and equality’ 주제 하에 SDGs 4, 8, 10, 13, 16, 17을 중점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2019년 검토가 완료되면, SDGs 1번부터 17번까지 세부 검토가 처음 완료되는 셈이다. 아울러 UN 총회와 함께 진행되며, 4년마다 발행하는 GSDR(Global Sustainable Development Report)도 발간될 예정이다.

2019년 VNR에는 총 51개국이 참여할 예정이며, 이중 41개국이 새로이 참여하고 10개국¹¹⁾은 기존에 이미 제출한 바 있다.

[표 3] 2019년 자발적 국별 검토(VNR) 참여 예정 국가 - 51개국

알제리	아제르바이잔	보스니아	브라질	부르키나파소
캄보디아	카메룬	중앙아프리카	차드	칠레
콩고	코트디부아르	크로아티아	엘살바도르	에리트레아
에스와티니	피지	프랑스	가나	과테말라
가이아나	아이슬란드	인도네시아	이라크	이스라엘
카자흐스탄	쿠웨이트	레소토	리히텐슈타인	모리타니

11) 아제르바이잔, 브라질, 칠레, 엘살바도르, 프랑스, 과테말라, 인도네시아, 필리핀, 시에라리온, 터키

모리셔스	몽골	나우루	뉴질랜드	오만
파키스탄	팔라우	필리핀	르완다	세인트루시아
세르비아	시에라리온	남아프리카	동티모르	통가
튀니지	터키	투르크메니스탄	영국	탄자니아
바누아투				

과거 3개년에 비해 아프리카와 아시아의 참여가 증가하는 형태를 볼 수 있으며, 최빈국, 내륙 개도국, 군소도서개발국 등의 참여 또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는 SDGs가 선진국에서만 이슈가 아닌 국제사회 모두의 과제로 이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모두가 함께 이행하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한편, 2019 HLPF에서는 한국의 적극적인 참여 역시 기대되는 바이다. 특히, 중점적으로 다루어질 목표들을 볼 때 교육, 경제성장, 평등, 평화·민주주의·인권인 만큼, 대북관계 개선과 함께 의미있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참고문헌

김지현 (2016) UN 고위급정치포럼(HLPF)의 SDGs 이행과정 검토, 개발과 이슈 제26호, 성남: 한국국제협력단

윤유리 (2017) UN 고위급정치포럼(HLPF)의 SDGs 이행과정 검토 II, 개발과 이슈 제39호, 성남: 한국국제협력단

Wahlén C. B. (2018) HLPF Concludes with Vote on Ministerial Declaration, Concerns about “Power of Mandate” and Those Left Behind, <http://sdg.iisd.org/news/hlpf-concludes-with-vote-on-ministerial-declaration-concerns-about-power-of-mandate-and-those-left-behind/> (접속일: 2018.10.15.)

Sarwar M. B. and Nicolai S. (2018) What do analyses of Voluntary National Reviews for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tell us about ‘leave no one behind’?, ODI Briefing note, London: Overseas Development Institute

Sustainable Development Knowledge Platform Website, <https://sustainabledevelopment.un.org/hlpf> (접속일: 2018.10.15.)

UNDP (2018) What does it mean to leave no one behind?, <http://www.undp.org/content/undp/en/home/librarypage/poverty-reduction/what-does-it-mean-to-leave-no-one-behind-.html> (접속일: 2018.10.22.)

UN ECOSOC (2018a) Progress towards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 (E/2018/64)

_____ (2018b) Discussion papers on the theme of the high-level political forum on sustainable development, submitted by major groups and other stakeholders (E/HLPF/2018/3)

_____ (2018c) Report of the high-level political forum on sustainable development convened under the auspices of the Economic and Social council at its 2018 session (E/HLPF/2018/7)

_____ (2018d) Ministerial declaration of the 2018 high-level political forum on sustainable development, convened under the auspices of the Economic and Social Council, on the theme “Transformation towards sustainable and resilient societies” (E/HLS/2018/1)

_____ (2018e) Progress towards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E/2018/64)

_____ (2018f) President’s Summary of the 2018 High-Level Political Forum on Sustainable Development

_____ (2018g) Voluntary National Reviews Synthesis Report, https://sustainabledevelopment.un.org/content/documents/210732018_VNRs_Synthesis_compilation_11118_FS_BB_Format_FINAL_cover.pdf (접속일: 2018.09.30.)

_____ (2018h) Amid Rampant Overconsumption, Responsible Food, Clothing Habits Key to Achieving 2030 Agenda, High-Level Political Forum Hears, as Ministerial Segment Begins, ECOSOC/6940, <https://www.un.org/press/en/2018/ecosoc6940.doc.htm> (접속일: 2018.9.30.)

UN General Assembly (2015) Transforming our world: 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 (A/RES/70/1)

[부록: 2018 자발적 국별 검토(VNR) 요약]

국가	보고서 및 발표의 주요 내용
알바니아	● 의회에서 2030 의제 이행 노력을 다지기 위한 결의안(Parliamentary Resolution on Albania's commitment to Agenda 2030)을 만장일치로 승인 ● 부총리 산하 부처간 SDGs 위원회에서 SDGs 이행 과정을 지휘하며 조정기능을 담당 ● 국가개발통합전략과 SDGs 간 일치성은 83% 수준
안도라	● SDGs 4(교육)와 13(기후변화)의 중요성 강조 ● 정부 차원의 통계 작업을 조직화 및 규정하기 위해 '2018-2021 통계 계획(Le Plan Statistique 2018-2021)'을 공인하고, 부처간 팀을 구성하여 통계자료 수집에 주력
아르메니아	● 총리 산하 지속가능개발 국가위원회, 부처 간 SDGs 대책위원회, 등 제도적 인프라 구축 ● SDGs 촉진 공동플랫폼을 구축하고자, 유엔과 개별 정부가 협업하는 세계 최초의 혁신 모델로 아르메니아 국별 SDG 혁신연구소(Armenia National SDG Innovation Lab) 설립
호주	● 전 의제에서 기업, 시민사회, 학계 등 범국가적 노력 강조 ● SDGs 5(양성평등), 8(양질의 일자리), 14(해수 및 담수생태계), 16(평화 · 정의 · 제도) 강조 ● 인도-태평양 지역의 지속가능 개발 지원
바하마	● 정부부처, 시민사회, 민간부문, 학계와의 협업을 통해 SDGs 기술위원회 설립 ● SDGs 이행 상황의 지속적인 검토를 위해 국가 차원의 통계 역량 강조
바레인	● 절대빈곤 인구비율 0% 및 지난 10년간 평균 경제성장률 37.4% 달성 ● 무상 · 의무 기초교육 실시 및 무상 · 보편적 보건서비스 제공 ● 정부행동계획과 SDGs의 일치성은 78% 수준
베닌	● 시민사회단체 및 기술 · 재정파트너 간 맵핑(mapping) 작업을 통해 조정과 관심이 필요한 분야 식별 ● SDGs 6(물 · 위생), 7(청정에너지), 11(지속가능도시), 12(책임있는 소비 · 생산), 15(육상생태계)에서 성과제시
부탄	● 2030 의제 재원조달을 위해 조세 제도 개선을 통한 세수 증대 방침을 내세우고 있으며, 다자 및 양자 파트너들과의 혁신적 재원조달 방안을 모색 ● 기후변화 및 자연재해 위험으로 인해 개발 성과가 무산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국제사회의 지원 촉구
카보베르데	● '2017-2021년도 지속가능개발 전략계획(The Strategic Sustainable Development Plan 2017-2021)' 수립 ● 개발목표 달성방안으로 거버넌스, 성평등, 인권, 생식보건, 인적자본 개발에 대한 투자 강조 ● 아디스아바바행동강령에 따른 새로운 재원조달 매커니즘 및 파트너십 모색

캐나다	● 범분야 우선과제로서 성평등을 강조하며, SDGs 이행시 젠더관점 주류화 실시 예정 ● SDGs 재원 조달 및 2030 의제 달성을 위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의 혁신적 파트너십 강조
콜롬비아	● 콜롬비아 평화협정 체결 후 지속가능 개발 의제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SDGs 6(물·위생), 7(청정에너지), 11(지속가능도시), 12(책임있는 소비·생산), 15(육상생태계)에서 진전 제시
도미니카공화국	● 재정 부족을 2030 의제 시행의 주요한 장애 요소로 지적 ● 정부 투명화에서 상당 부문 진전이 있어왔으나, 향후 개선필요 사항 잔존 ● 국가개발전략과 SDGs 간 일치성은 72% 수준
에콰도르	● 2018년 4월부터 대통령령 제371호를 공포하여 국가 정책으로서 2030 의제 채택 ● SDGs 1(빈곤퇴치), 6(물·위생), 11(지속가능도시), 12(책임있는 소비·생산), 15(육상생태계), 17(파트너십) 달성을 국가 차원에서 지원
이집트	● '이집트 지속가능개발전략(이집트 비전2030)'을 통해 경제, 사회, 환경 3분야에서 SDGs 이행 지원 ● 2016년 11월부터 국제금융기구들의 지원을 받아 종합적인 경제 개혁 프로그램을 시행하며 물가상승률, 재정적자, 대외채무 등 여러 지표에서 경제 안정화 달성
그리스	● 부처간 조정네트워크의 적극적 운영을 통한 범정부적 접근 및 이해관계자와의 협업을 통한 범사회적 접근 강조 ● VNR 검토 후, 2019년에 SDG 국가이행계획(National Implementation Plan for the SDGs)을 수립하고 법률 및 정책 프레임워크에서 SDGs의 주류화 방안을 모색할 예정
기니	● '기니 Vision 2040'의 실행을 위해 SDGs와 통합시킨 '국가경제사회발전계획(PNDES) 2016-2020'을 채택 ● 지속가능개발과 취약성 사이의 연관성에 주목하여 2018년 6월 지속가능발전과 취약성에 관한 국가 심포지움 조직
헝가리	● SDGs 달성에 있어 인권, 연대의식, 글로벌 파트너십 강조 ● 2017년 다중이해관계자 플랫폼 구축을 통해 포괄적 과정을 통한 SDGs의 국내 실행력과 정책일관성 제고 ● 통계청과의 협력을 통해 SDGs 지표의 75%가 국내 이용 가능한 상태
아일랜드	● SDGs 국내적 달성을 위한 'SDGs 국내실행계획 2018-2020' 수립 ● SDGs와의 정책일관성을 위해 아일랜드 국제개발협력 프로그램인 Irish Aid의 새로운 백서 발간 ● 2018년 2월 발족된 아일랜드 정책 이니셔티브인 '프로젝트 아일랜드 2040'의 기초 하에서 SDGs 달성에 대해 노력

자메이카	● SDGs 달성에 대한 노력의 일환으로 최초의 국가 장기 개발 계획 'Vision 2030'을 선포하고, 본 계획의 실행을 모니터링하는 '4차 중기 사회경제 정책 프레임워크(MTF) 2018-2021'을 시행 ● SDGs 국내화 및 모니터링에 대한 통계 역량을 강화시켜 통합적 모니터링 프레임워크 구축
키리바시	● '키리바시 개발계획 2016-19'를 수립하여 국내 지표 설정 ● 2036년까지 발췌될 '키리바시 비전 20' 발족 ● 개발조정위원회가 키리바시개발계획 검토를 포함한 국내 전반적인 개발활동을 관리
라오스	● '8차 국가사회경제개발계획(NSEDP) 2016-2020' 중 60% 가량의 지표를 SDGs 지표와 연관시켜 SDGs 달성에 대한 노력 표명 ● 2016년 9월 불발탄 제거를 라오스의 독자적인 SDG 18번으로 설정 ● 빠른 경제 성장으로 2018년 최빈국 졸업을 위한 요건 2/3 달성
라트비아	● 2017년 중기 영향평가를 실시하여 '라트비아 지속가능발전전략 (Latvia 2030)'과 '국가개발계획2020(NDP2020)'의 진행 상황 평가 ● 중점 도전 분야를 "혁신적이고 생태효율적 경제발전"과 "소득 및 기회 불평등 감소"로 설정 ● 국가 발전 및 SDGs 달성에 대한 접근을 국회에서 "Putting people first"로 설정
레바논	● 2016년 정권교체 이후 SDGs 달성 가속화의 일환으로써 SDGs 활동의 진전을 조망하는 국무총리 산하 국가위원회 발족 ● SDGs의 4P(People, Prosperity, Planet, Peace) 원칙에 대응되는 주제별 그룹과 레바논 SDGs 웹사이트, SDGs 의회위원회 설립
리투아니아	● 국가전략계획과 SDGs의 일관성 제고를 위한 호환성 분석 실시 ● 우선순위 분야에 개발협력을 포함시켜 SDGs 달성을 위한 다자, 양자 기구에 대한 지원 의지를 표명
말리	● '말리 2025(CREDD)'를 포함한 주요 국가계획문서에 SDGs를 우선순위로 고려 ● SDGs의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원칙에 따라 대통령 비서실 사회비상구상 프로그램인 '제로 기아' 수립
몰타	● 몰타의 장기적 지속가능발전과 SDGs 달성을 통합한 프레임워크인 'Vision 2050' 발족 예정 ● 범정부적 접근을 통해 SDGs 주인의식 제고 노력 ● 몰타 ODA 수행 계획의 업데이트와 말타개발은행 개설에 대한 법안 통과

멕시코	● SDGs특별기술위원회(CTEODS)가 멕시코 SDGs 수행에 대한 모니터링 및 데이터 업데이트를 담당하고, 현재 81개의 지표가 멕시코 개방형 데이터 플랫폼을 통해 접근 가능한 상태 ● 2016년 국립토계연구소가 232개의 SDGs 지표와 국내지표 매핑 작업 착수 ● SDGs의 세 가지 원칙(형평, 포용성, 비차별)과의 통합을 위해 2018년 기획법 개정안 통과
나미비아	● SDGs를 장기 국가개발프렘임워크 'Vision 2030' 하의 '제5차 국가개발계획'에 통합 ● 모니터링에 사용 될 모든 지표에 대한 주요 메타 데이터를 제공하는 국가지표프레임워크를 개발
니제르	● 지속가능발전 및 포괄적 성장을 위한 국가전략(SDDCI)인 '니제르2035'와 '니제르 경제사회발전계획(PDES) 2017-2021'에 제시된 비전과 국가발전 목표를 SDGs와 통합 ● SDGs의 43개 목표, 66개 지표를 '니제르 경제사회발전계획(PDES) 2017-2021'에 통합
파라과이	● 2014년 말 '파라과이 국가개발계획(PND)'을 통해 네 가지 우선순위 분야를 설정 ● 결과계획시스템을 통해 SDGs에 대한 국내 예산을 연계 ● 유엔 인권 고등 판무관실과 함께 권고안 모니터링 시스템인 공공 온라인 플랫폼 SIMORE를 개발, 현재는 확장된 SIMORE Plus 버전 개발 중
폴란드	● 2030 의제와 SDGs를 실행하기 위한 핵심 문서로 '책임성 있는 개발 전략' 채택 ● 사회 · 경제 · 환경이라는 차원에 의해 우선순위가 정의되며, 정부의 효과성 및 효율성 강화를 바탕으로 목표 성취 추구 ● 정부와 민간의 대화 및 협력 경험을 VNR에 담았으며, SDGs 모니터링을 위한 국가 지표 제시
카타르	● SDGs와 '2018-2022 제 2차 카타르 국가발전전략'의 연계 정도를 VNR을 통해 제시하였으며, 기간 내 목표달성을 위해 관련 기관의 자원배분 조정을 천명 ● SDGs 6(물 · 위생), 7(청정에너지), 11(지속가능도시), 12(책임있는 소비 · 생산), 15(육상생태계), 17(파트너십) 성취수준과 도전과제를 세부적으로 명시
루마니아	● 1999년 '루마니아 지속가능한 국가개발전략'을 수립 이후, 현재 2030 의제와 SDGs를 반영한 새로운 국가전략을 재검토하고 있음을 명시 ● 루마니아의 풍부한 생물다양성 보호와 풍력 · 태양광 · 수력 등을 이용한 에너지 산업에서의 노력과 성취 등을 강조

사우디아라비아	● 전략계획인 '비전 2030'을 발표하였으며, 세 가지 축(활기찬 사회, 번영하는 경제, 야심찬 국가)을 바탕으로 경제 다각화 등의 현안에 대응할 것이라고 제시 ● 통계역량 강화를 위한 데이터 가용성 증대 등이 주요 도전과제로 식별되었으며, 지표와 분석의 품질 강화를 주요 우선순위로 설정
세네갈	● '제 2차 세네갈부흥계획(PSE)'에서 SDGs 세부 목표를 구체화하고, 국가시스템을 강화할 것이라고 제시 ● 제도적 노력의 일환으로 공공정책 모니터링 및 평가에 관한 법령 제정 ● SDGs 17개 분야에 대한 현황과 SDGs 달성을 위한 주요 도전과제 제시
싱가포르	● 지속가능한 개발에 대한 통일적인 접근을 위해 'SDGs 부처간위원회'가 정부기관, 민간기업 등의 활동주체 자문 ● 2030 의제 시행을 위해 글로벌 지표, 현지상황을 반영한 지표, 국가별 순위 등의 정보를 종합적으로 활용 ● SDGs 17개 모든 분야에 대한 진단과 향후도전과제 제시
슬로바키아	● 모든 정책에 지속가능한 개발이라는 개념을 포함하고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등 정부 차원의 기본원칙 수립 ● SDGs를 반영한 여섯 가지 중점영역(교육, 지속가능하고 지식에 기반한 경제, 빈곤 감소, 기후변화 대응, 법치 및 민주주의, 보건)의 도전과제와 자국의 우수사례 제시
스페인	● 2018년 새 정부 출범과 함께 SDGs 달성을 위한 정부조직 개편 및 담당 고위공무원 직제 신설 ● VNR을 준비하는 과정을 통해 정부부처와 지방정부 등이 함께 참여하는 High-Level Group 창설 ● 2030 의제 시행을 위한 실행계획의 승인을 통해 스페인의 우선순위, 지표 및 기초선 등 확립
스리랑카	● 지속가능개발부 설립,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의회 위원회 설립, 지속가능개발법 제정 등을 시행성가로 제시 ● 국가장기전략, 중기전략, 단기 예산안 등의 계획이 SDGs와 보조를 같이 하도록 조정 ● 2018년 고위급정치포럼의 주요 의제를 비롯한 빈곤, 보건, 교육 등의 분야에서 도전과제와 성취사항 제시

팔레스타인	● SDGs 모니터링과 시행을 담당하는 총리실 직속부서 설립 ● 시민을 최우선에 둔다는 기조 하에 2017-2022년 기간 동안 적용할 '국가정책의제'에서 75개의 SDGs 세부목표 채택 ● 점령상황 해결, 인구증가 대응, 자원부족 해결, 국가기관 역량증진, 데이터 가용성 증대 등을 주요 과제로 제시
수단	● 2030 의제와 SDGs 시행을 위해 고위급 수준에서 제도적 틀 확립 ● 평화와 안정, 농업 발전, 사회변화 대응, 시행수단 확보 등의 영역에서 수단이 보유한 비교우위와 대응과제 제시
스위스	● 연방평의회에서 지속가능한 개발 시행을 위한 4개년 전략을 수립하며, 현재는 2019년까지 유효한 전략 적용 ● 2030 의제를 위한 모니터링을 강화하였으며, 기초선 조사와 85개 지표에 대한 갯분 석을 실시(긍정적 변화 39개, 유지 12개, 부정적 변화 14개, 평가불가 20개)하여 결과 활용
토고	● 경제구조를 변화시켜 지속가능하고 회복력 있는 성장이 가능하도록 '2018-2022 국가개발전략'에 SDGs 개념 포함 ● SDGs 6(물·위생), 7(청정에너지), 11(지속가능도시), 12(책임있는 소비·생산), 15(육상생태계), 17(파트너십) 진행 상황과 향후 과제 명시
아랍에미리트	● 국가발전계획인 '비전 2021'에 지속가능한 개발 개념 반영 ● 2017년에 국제협력장관이 주관하는 지속가능한 개발 국가위원회를 설치하였으며, 총 17개 연방정부조직이 참여 ● 4개의 지속가능한 발전 중심축과 6개의 주요 목표, 52개의 연방정부 수준 핵심성과 지표 제시
우루과이	● 시민 참여, 인권 관점의 반영, 2030 의제 달성을 위한 민간분야의 기여 등을 중점적으로 서술 ● SDGs 6(물·위생), 7(청정에너지), 11(지속가능도시), 12(책임있는 소비·생산), 15(육상생태계) 진행 상황과 향후 과제 제시
베트남	● 베트남의 상황 및 우선순위에 부합하는 115개의 SDGs 세부목표를 VSDG로 분류하여 국가실행계획에 포함 ● 국가지속가능개발위원회 개편, 조정업무를 담당하는 실무단 창설 등의 제도적인 노력 경주 ● SDGs 17개 모든 분야에 대한 진전 및 당면과제 제시

* 자세한 내용은 Sustainable Development Knowledge Platform 웹사이트의 국별 평가 참조

연구자료

2018-21-258

『개발과 이슈』는 국제개발협력분야의 주요 현안에 대한 분석과 최근 연구 및 정책을 소개하여 국내외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관련 정책 수립과 사업 추진에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발간되는 비정기간행물입니다. 본 연구 보고서의 내용은 출처와 집필자 명시하에 인용이 가능합니다. 본 연구의 내용은 한국국제협력단의 공식적인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본 자료는 KOICA ODA전자도서관(lib.koica.go.kr)을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